

Online Series

2024. 02. 05. | CO 24-11

브릭스(BRICS) 확대의 함의: 브릭스 정체성 변화와 MENA 지역으로 확대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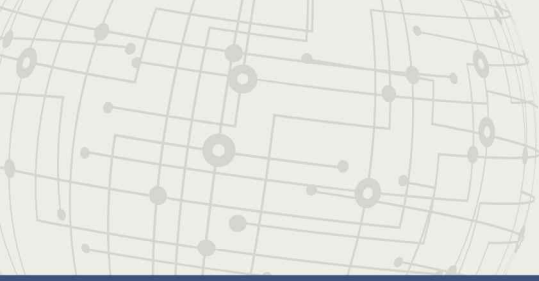
이용재(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 부연구위원)

2024년 1월 1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는 글로벌 남부의 대표적인 부상하는 국가 그룹 브릭스(BRICS)의 회원국 자격을 획득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2023년 1월 2일 브릭스 가입을 공식 발표하였다. 본 고에서는 최근 브릭스 확대가 가지는 함의를 고찰할 것이다. 첫째, 브릭스의 정체성 변화를 고찰할 것이고, 둘째, 브릭스의 새 회원국이 왜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집중되었는지 분석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브릭스의 정체성이 변했는가?

브릭스는 2001년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의 투자관리 상무이사 짐 오닐(Jim O'Neill)의 보고서에서 '부상하는 시장경제 대국(large emerging market economies)'인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의 첫 글자를 따서 이들을 '브릭(BRIC)'이라고 지칭한 것이 시초였다.¹⁾ 브릭(스) 창립 및 새 회원국의 상황을 요약한 <표1>을 보면, 4개국은 영토와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국가들이고, 선진국에 비해

1) 연례 정상회의와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5개국이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고, 실무진이 있어 정식 국제기구로 생각할 수 있지만, 브릭스는 헌장, 상설 사무국과 활동 자금이 없는 등 제도화 수준이 낮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 그룹인 'G7(Group of Seven)'과 같은 비공식 구조를 가진 국가 그룹이다. 2009년 6월 16일 러시아 예카테린버그(Yekaterinburg)에서 제1회 브릭(스)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이것을 브릭(스)의 정식 출범으로 보고 있다. "History of BRICS," *BRICS Information Portal*, <<https://infobrics.org/page/history-of-brics/>> (Accessed January 12, 2024); Jim O'Neill, "Building Better Global Economic BRICs," 『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 no. 66 (November 30, 2001), 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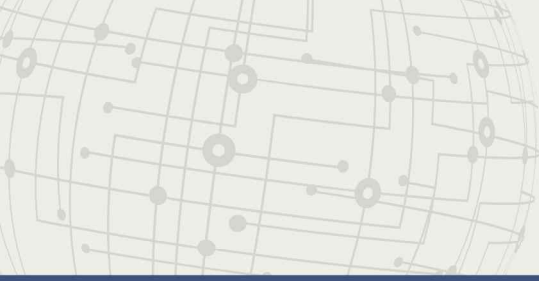
경제성장률이 훨씬 높고, 지역적으로 글로벌 남부에 있다는 공통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정치체제는 2001년 당시 브라질, 러시아, 인도가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고, 중국만 권위주의 국가이다. 브릭스는 정치체제로 공통점을 찾기 힘들지만, 초창기 권위주의보다 민주주의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남아공은 영토와 인구 규모에서 기존의 4개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당시 아프리카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주주의 국가였고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과 안정된 사회를 유지한다는 상징성을 가지는 회원국이었다. 초창기 브릭(스)는 큰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경제이며, 국제질서(법, 규범)를 해치지 않는 국가 집단이었다.

<표 1> 브릭(스) 창립 회원국²⁾

기존 회원국	영토(순위)	인구(순위)	연평균 경제성장률 (2000-2010)	지역	정치체제
브라질	5위	5위	3.39%	남아메리카	민주주의
러시아	1위	7위	5.48%	(동)유럽	(불안정) 민주주의
인도	7위	2위	6.28%	아시아	민주주의
중국	4위	1위	10.35%	아시아	권위주의
남아공 (2010년 가입)	24위	24위	3.54%	아프리카	민주주의
새 회원국	영토(순위)	인구(순위)	연평균 경제성장률 (2014-2022)	지역	정치체제
사우디아라비아	13위	42위	2.58%	아시아	권위주의
이집트	30위	15위	4.45%	아프리카	권위주의
에티오피아	27위	12위	7.98%	아프리카	권위주의
이란	18위	17위	2.45%	아시아	권위주의
아랍에미리트	116위	92위	2.99%	아시아	권위주의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Data Bank*,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anuary 2, 2024); “Largest Countries in the World (by area),” *World Meter*, <<https://www.worldometers.info/geography/largest-countries-in-the-world/>> (Accessed January 2, 2024); “Polity IV Project, Political Regim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1800-2018,” *Center for Systemic Peace*, <<https://www.systemicpeace.org/inscrdata.html>> (Accessed January 2, 2024)를 참고로 정리함.

2) POLITY IV 프로젝트의 민주주의 지수(0-10)에 따르면 6 이상의 국가를 민주주의로 분류한다. 2001년 러시아는 6, 브라질은 8, 인도는 9를 기록하였다. 러시아는 불안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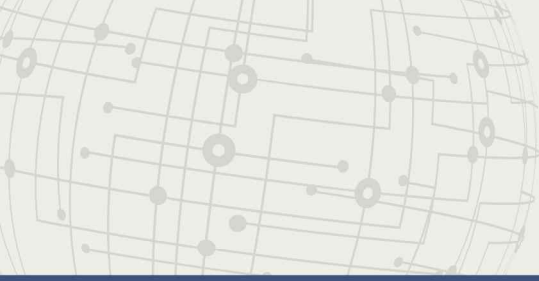
2024년 정식으로 회원국 자격을 얻은 5개국의 상황은, 4개 창립 회원국이 공유했던 큰 영토, 많은 인구, 빠른 경제성장 및 민주주의 정치체제라는 공통점을 모두 만족시키는 회원국은 없어 초창기 정체성이 희석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영토 크기에서 20위 내에 자리매김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뿐이고, 인구에서도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만이 20위 내에 자리했고, 경제성장률에서도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만이 3% 이상을 기록했다. 오히려 5개국을 공유하는 특징은 지리적 위치와 정치체제이다. 5개국은 모두 MENA(Middle East-North Africa: 중동-북아프리카)지역에 위치하고 모두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³⁾ 외부(김 오닐의 보고서)에서 주어진 브릭스의 기존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주축 회원국의 전략적 고려에 따라 회원국 자격을 부여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왜 브릭스가 전통적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은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를 대거 받아들였는지 고찰해볼 것이다.

왜 브릭스 ‘MENA(중동-북아프리카)’ 국가에게 회원국 자격을 집중적으로 주었는가?

브릭스가 MENA 지역 국가를 집중적으로 가입시킨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본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 미국의 영향력의 상대적 감소와 남아시아 안정 도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고, 대서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하여 전략적 요충지이기에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유럽 열강의 침략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세계 제2차대전 후 미국은 석유 수입, 이스라엘 보호,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해왔고, 걸프전에서 이라크를 성공적으로 격퇴하면서 중동에서 질서 유지자로 입지를 유지하였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면서 중동에서의 신뢰를 상실하기 시작하였고,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중동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였고, 미국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국인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한 대중국 ‘전방위 압박’ 전략을 펴고 있다. 또한, 2010년대 미국에서 ‘세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2018년을 기점으로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되면서, 미국 대외정책에서 MENA 지역에 대한 중요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⁴⁾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미국이 중동에서 지역안정을 위하여

3) 오히려 기존의 브릭스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국가는 큰 영토 혹은 많은 인구(8,000만 명 이상)와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콩고민주공화국, 터키, 필리핀이다. 정치체제가 권위주의라는 것을 제외하면 창립 회원국의 정체성에 더 부합한다.

4) Meheer Commuri, “One Step Forward, Two Steps Behind: The US Shift Away From the Middle



투입하는 군사력, 자금, 설비(장비)의 감소로 이어져 브릭스에 가입한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었다. 그래서 이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면서, 점점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⁵⁾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적국인 이란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고, UAE는 중동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⁶⁾

MENA 지역 국가의 브릭스 가입은 이 지역에서 미국 패권의 공백을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브릭스가 메우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중러가 MENA 지역에서 미국의 우방국(사우디아라비아와 UAE)과 적국(이란)을 브릭스로 편입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를 발생시킨다. 미국의 우방을 끌어들이면서 미국의 지역 내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반대로 브릭스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중러는 중동에서 중요한 행위자로서 반중-반러 & 친서방 연합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중동 이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미국이 중동에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역 국가에 적극적으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⁷⁾ 2023년 중국의 적극적 인 중재로 브릭스 새 회원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관계 개선에 합의하였고, 양국은 중러가 주도하는 다자안보 기구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에 가입하였다. 미국이 이 지역에 무기 수출 거절로 생긴 공백을 중국이 중동에 무기(동평 탄도 미사일, 왕룡 폭격기 드론) 판매를 확대하고, 공동으로 무기 생산을 추진하면서 메우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 함께 (러시아와 동반하여)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⁸⁾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러가 MENA 지역에 대한 군수품 수출은 지난 20년간 2~3배 증가하였다. 중동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립적 견해를 밝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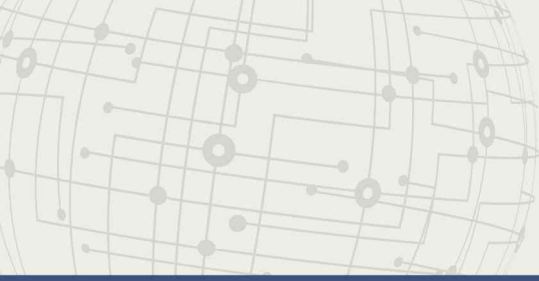
East,” *Peery World House*, May 17, 2023, <<https://global.upenn.edu/perryworldhouse/news/one-step-forward-two-steps-behind-us-shift-away-middle-east>> (Accessed January 20, 2024).

5) Christopher Michele and Joshua Goodman, “Three Broken Teacups: The Crisis of U.S.-UAE relations,” *Air Uversity, Wild Blue Yonder*, June 27, 2022, <<https://www.airuniversity.af.edu/Wild-Blue-Yonder/Article-Display/Article/3071639/three-broken-teacups-the-crisis-of-us-uae-relations/>> (Accessed January 20, 2024).

6) Joshua Krasna, “Big Changes In United Arab Emirates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April 18, 2023, <<https://www.fpri.org/article/2023/04/big-changes-in-united-arab-emirates-foreign-policy/>> (Accessed January 19, 2024).

7) Nikolay Khozanov, “Russian Relations With the Middle East After Putin’s Invasion of Ukraine,” *Istituto per gli Studi di Politica Internazionale*, September 11, 2023, <<https://www.ispionline.it/en/publication/russian-relations-with-the-middle-east-after-putins-invasion-of-ukraine-143131>> (Accessed January 19, 2024).

8) Mohammad Eslami and Maria Papageorgiou, “China’s Increasing Role in the Middle East: Implications for Regional and International Dynamics,”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June 2, 2023, <<https://gjia.georgetown.edu/2023/06/02/chinas-increasing-role-in-the-middle-east-implications-for-regional-and-international-dynamics/>> (Accessed January 19, 2024).



있어, 러시아는 이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여 친서방-반러 세력 형성을 막고, 부족한 무기(공격, 정찰 드론, 미사일, 탄약과 개인보호장비)를 공급받았다.⁹⁾

인도는 중러와 달리 중동에서 미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 지역에 접근하기보다는 전체 인구에서 이슬람교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14.2%이고 이웃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과 카슈미르 지역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는 중동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이슬람 극단주의가 남아시아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중동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강하다.¹⁰⁾ 인도는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국방 협력 강화를 진행 중이고, 2016년 모디 총리는 이란을 방문하여 국방-안보 협정을 체결하였고, 2017년에는 이스라엘과도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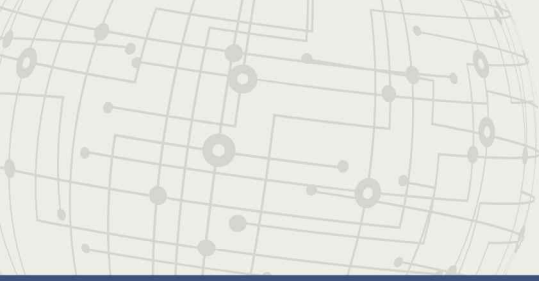
둘째, 브릭스와 MENA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이 지역 국가들의 브릭스 가입을 촉진하였다. 중동국가는 브릭스 중추 회원국 중국, 러시아, 인도에 석유, 투자처, 수출 시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다. 무함마드 쿠르드 외제킨(Muhammed Kürşad Özekin)과 엔진 수네(Engin Sune)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브릭스와 MENA 지역 간 수출은 10배, 수입은 11배 증가하였다.¹¹⁾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안정적 석유 수입을 위하여 중동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산유국인 러시아는 새 회원국인 이란, 사우디, UAE와 브릭스를 통한 석유 수출 블록 형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와 석유 위안화 거래, 금융 거래, 설비투자, 정보·데이터 공유, 핀테크 등 다양한 경제협력력을 추진 중이다.¹²⁾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석유를 위안화로 거래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집트와는 ‘이집트 비전(Egypt Vision) 2030’의 ‘수에즈 경제무역협력지역(the

9) Nikita Smagin, “Middle Eastern Influence Is Growing Fast in Russi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Carnegie Politika*, November 16, 2023, <<https://carnegieendowment.org/politika/91028>> (Accessed January 21, 2024).

10) Jon B. Alterman and C. Raja Mohan, “India’s Middle East Strategy,”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December 13, 2022, <<https://www.csis.org/analysis/indias-middle-east-strategy>> (Accessed January 21, 2024).

11) Muhammed Kürşad Özekin and Engin Sune, “Contesting Hegemony: The Rise of BRICS and the Crisis of US-led Western Hegemony in the MENA Region,”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1, no. 3 (2023), p. 422.

12) Fareed Rahman, “Saudi Arabia and UAE officially join Brics: What will it mean for the bloc?,” *The National*, January 01, 2024, <<https://www.thenationalnews.com/business/economy/2024/01/01/saudi-arabia-and-uae-officially-join-brics-what-will-it-mean-for-the-bloc/>> (Accessed January 23, 2024); “中, 달러 패권에 도전 가시화,” 『조선일보』, 2023.04.01., <https://archive.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_s.jsp?Y=2023&M=04&D=01&ID=2023040101014GJ104> (검색일: 2023.11.06.); “러·중동·브라질… 中위안화 결제국 늘어난다,” 『조선일보』, 2023.04.01.,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3/04/01/QRTKCFRSTZAYVK5TVBLNRFOXQM/>> (검색일: 2023.11.06.).



Suez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Zone)’ 건설과 항만 상호 연계 건설 사업을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추진 중이다.¹³⁾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는 중동을 제재를 우회하여 상품을 공급받고 수출하는 공급망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UAE와 이란은 러시아에 전자기기 및 반도체를 우회 수출하면서 러시아-UAE 무역은 2022년 68% 증가한 90억 달러에 이르렀고,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집트, 튀니지는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제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러시아는 싼값으로 중동에 곡물과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¹⁴⁾ 2022년부터 인도는 중동국가와 여러 가지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인도는 이스라엘과 UAE가 참여하는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 국가 그룹인 I2U2에 참여하고 있으며, UAE, 오만과 액화천연가스 운송비(매년 약 9억 4,500만 달러)를 줄일 수 있는 50억 달러 규모의 해저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협의 중이다.¹⁵⁾ 그리고 2023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E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인도-중동-유럽 경제 회랑’ 프로젝트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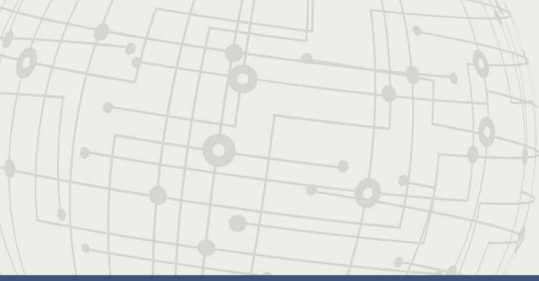
브릭스 확대의 한국에 대한 함의

MENA 지역 국가들이 대부분 친미 성향을 보여, 브릭스의 MENA 지역 확대에 인한 반미-반서방을 강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서방의 견제를 받는 중러가 주도하는 브릭스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피할 수 없다. 특히 석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지역 내 투자를 확대하는 한국에게 브릭스 영향력 확대는 석유 수입, 무역, 투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핵무기개발 경험이 있는 미국의 적국 이란의 브릭스 가입은 향후 브릭스 회원국과 북한과의 협력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중러가 주도하는 브릭스 회원국이 석유, 교역, 투자 기회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이 지역 국가들과 양자-다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2023년 10월 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

13) 중국은 ‘수에즈 경제무역협력지역’에 최대 투자국이 되었고, 주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산업에 투자가 집중되었고,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과 대출 등 금융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Hannah Feng, “China-Egypt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Prospects,” *China Briefing*, September 5, 2022, <<https://www.china-briefing.com/news/china-egypt-bilateral-trade-and-investment-prospects-are-bright/>> (Accessed January 24, 2024).

14) Nikita Smagin, “Middle Eastern Influence Is Growing Fast in Russia,”; Nikolay Khozanov, “Russian Relations With the Middle East After Putin’s Invasion of Ukraine,”

15) Baset Asaba, “UAE-Oman-India \$5 billion undersea pipeline proposed,” *Oil & Gas*, May 18, 2023, <<https://www.oilandgasmiddleeast.com/news/uae-oman-india-5-billion-undersea-pipeline-proposed>> (Accessed January 25, 2024).



정 타결하였으며, 12월 중동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중동과 경제통합의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¹⁶⁾ 이 지역과의 경제 통합도가 높지 않다. 향후 더 많은 국가와 양자-다자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경제통합을 통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외교-안보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북핵 문제에서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 경제협력과 달리 한국과 MENA 지역 간 먼 지리적 거리와 이질적인 문화로 인하여 상호 이해가 부족하므로 특정 사건으로 상호 부정적 인식이 급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확산하기 위하여 “한국문화 프로그램 운영, 한류 전파, 한국문화 소개 포털 사이트 운영 및 책자 발간, 한국 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한국문화 현지 전문가 육성, 종교 지도자 초청, 중동 문화 유산 공동 조사 발굴 복원 사업 참여”해야 하고 국내에도 중동문화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을 추진해야 한다.¹⁷⁾ 안보-전략에서는 중동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석유 수송로인 홍해, 바발만데브 해협, 호르무즈 해협, 소말리아 동부 해안은 테러리스트, 해적, 이란 함정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므로 아라비아해 국가들과 해상안보를 위한 합동 군사훈련, 실시간 정보공유, 군수품 공급을 통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¹⁸⁾ ©KINU 202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6)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분 확산 기반 마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12.2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240>> (검색일: 2024.01.23.).

17) 현승수 외,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방안』, KINU 연구총서 23-09, (서울: 통일연구원, 2024), p. 230.

18) 위의 책, pp. 229~230.